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5호 [루체 제23442호] 주제 100 (2011)년 5월 5일 (목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종합체육관개관식에 참가한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닌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연건축면적이 근 1만m²에 달하는 종합체육관은 통구, 배구, 실내축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그존히 갖추어져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이다. 최상급의 종합체육관이 홀륭히 일떠선 결과 인민군대의 체육기술수준을 한계만 더 높이 추켜세울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개관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은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흡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개관식에는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 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통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우동측동지, 주규창동지, 김창섭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최부일동지, 김영철동지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 체육상 박명철동지, 인민군

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언제나 인민군대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현대적인 체육설비들과 기체들을 보내주시고 체육선수들을 사랑의 한풀에 안으시여 크나큰 응장을 베풀어주신데 대해 말하였다.

계속하여 연설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능한 설계가들과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견해주시고 필요한 자재들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심으로써 종합체육관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홀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인민군대안의 전체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종합체육관에 모시고 개관식을 진행한 오늘의 하였다.

개관식에 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차수 부위원장인 김영춘동지

게 벌림으로써 모든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판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응장화려하게 건설된 종합체육관의 외부와 내부를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홀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개관식이 끝난 다음 동행한 책임 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체육단들이 진행하는 개관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련마ه온 기술을 날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홀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장병들, 군대안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개관식에 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차수 부위원장인 김영춘동지

연설자는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해 온 나라가 폭풍처럼 내달리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발맞추어 혼련장과 경기장마다에서 김영춘동지 사상전, 투자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리는 혜택

우리 당의 은정 속에 꽂피는 기쁨과 량만 생활의 정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당과 국가가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는 민족적시책의 하나인 정휴양 제도에서도 절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민족적시책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명승지들을 근로인민대중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통쾌로 암거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에 해마다 수십만명의 각계 층계들이 즐거운 정휴양의 날을 보내고 있다.

각지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 속에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무리 꽂피워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끝없는 노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자작곡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새 조국건설시기 7개의 정휴양소로 첫걸음을 뗀 우리 정휴양제도는 가렬한 전회의 불길속에서도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체 40(1951)년 2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꽂파된 소들을 진설하도록 해주시고 그 운영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보장해준다.

그 사랑, 그 은정 속에 그에 10여개의 정휴양소들이 개설되고 전시의 준엄한 속에서도 날을 따라 늘어났을뿐 아니라 공장, 탄광, 팩션들에서

는 아간정양소가, 전선에는 인민군전사들을 위한 휴양소까지 생겨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42(1953)년 8월에는 오늘 휴양소와 정양소, 꽂파건설을 복구건설하는 것에 공장을 복구건설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나라는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는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휴양소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고기, 알, 물고기, 남새보장과 함께 학습지도를 위한 후방공급체계까지 세우도록 하시고 그 판례운영을 위한 비품과 문화오락기, 체육기자재들도 원만히 보장해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있는 휴양소와 정양소들을 더 잘 꾸리고 그 능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새로 휴양소, 정양소, 꽂파양소들을 훌륭히 꾸려졌다.

여기에서 해마다 수십만명의 각계 층계들이 즐거운 정휴양의 날을 보내고 있다.

각지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들의 문화체육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르쳐 주시였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휴양소, 정양소, 꽂파양소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설계로부터 토끼과, 차제,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관련하여 계획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정경진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휴양소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고기, 알, 물고기, 남새보장과 함께 학습지도를 위한 후방공급체계까지 세우도록 하시고 그 판례운영을 위한 비품과 문화오락기, 체육기자재들도 원만히 보장해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있는 휴양소와 정양소들을 더 잘 꾸리고 그 능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새로 휴양소, 정양소, 꽂파양소들을 훌륭히 꾸려졌다.

여기에서 해마다 수십만명의 각계 층계들이 즐거운 정휴양의 날을 보내고 있다.

각지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만명의 근로자들이 정휴양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 공장, 기업소정양소들에서도 행복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김정숙평양체육사업과 안주지구탄광원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통강오석산화강석광장을 비롯한 많은 생활에는 윤기가 있으며 그린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량만의 열정도 나를 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매마를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맡았으면 정서로 정성과 량만이 없는 생활에는 윤기가 있으며 그런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량만의 열정도 나를 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단한 우표집을 가는 국가우표발행국의 한 일군의 말을 듣고 우리는 열마전 그의 집을 찾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정말 감탄할만 한 박식가였다. 의료부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혁신과 문화, 건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집은 주제와 형식이 세로운 것으로 하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에게는 그런 우표집이 많았다.

김정일동지는 책장에 주린이 꽂혀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에 여려 가지 상식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집이 바로였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면적인 지식과 상식을 주고 생활의 기쁨을 더해주는 우표를 저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우표를 수집하면서부

김만유병원 힘상연구소 순환기연구실 연구사 김현남동무 생활의 정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꽃이나 알찬 열매를 맡았으면 정서로 정성과 량만이 없는 생활에는 윤기가 있으며 그런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량만의 열정도 나를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지난해 우표전시회에 내놓았던 우표전시품을 청탁보았다. 우표전시품의 제목은 『봄』였다. 거기에에는 대와 관련된 한자료들이 우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하늘의 빼울리우는 비행사들의 모습과 생활을 반영한 우표들도 있었다. 때와 관련된 여려 가지 상식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전시품은 주제와 형식이 세로운 것으로 하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에게 우표집을 찾았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책장에 주린이 꽂혀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에 여려 가지 상식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집이 바로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정말 감탄할만 한 박식가였다. 의료부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혁신과 문화, 건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집은 주제와 형식이 세로운 것으로 하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에게는 그런 우표집이 많았다.

김정일동지는 책장에 주린이 꽂혀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에 여려 가지 상식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그 우표집이 바로였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면적인 지식과 상식을 주고 생활의 기쁨을 더해주는 우표를 저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우표를 수집하면서부

터 자연과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우표수집활동은 생활에 기쁨과 정서를 안겨주고 정신적재부를 주는 고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젠 우표들이 떠어놓을 수 없는 저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는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우리 연구사선생이라고 존경받고 있으며 우표창작가들과 수집가들 속에서는 뜨거운 조국애를 지닌 우표수집 가라는 친사를 받고 있다.

지난 기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자치료사업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소문물들과 연구자료들을 많이 내놓은 열정적이고 실력있는 의학자이며 동지에게 뜨겁고 다정다감한 인간인 김현남동무의 사업과 생활에는 그처럼 우표집이라는 남다른 자랑도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한 우표집 가의 생활에서 다시금 느꼈다. 풍만한 정서는 생활에 대한 사랑을 복돌아주고 정열이 생활에 더해지며 창조의 큰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을.

『우표덕입니다.』

그는 우표는 자신의 생활의 길동무뿐 아니라 말없는 스승이라고 하면서 책장을 열어보이었다. 순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축복받은 새 가정

순천수지일용품공장로동자 안정옥동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은 흥렬탄광로적경 영양제식당은 정갈한 휴양각을 불러機關했다.

영양제식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양쪽에 세워진 진승조각들이 어찌도 신통한 질로 웃음이 솟구쳤다. 우리는 로적경쟁장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 상식이다.

누군가 소장동무가 온다고 말하여 서야 그는 이야기를 맺는 것이었다.

김우선소장은 우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회전로보수현장을 풀수록마다 휴양생들이 어디를 들을 걸구나.』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오늘계획도 문제없이...』

말이 채 끌나기도 전에 굽진공들이 대답해온 두손가락을 차례로 차려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오늘계획도 문제없이...』

말이 채 끌나기도 전에 굽진공들이 대답해온 두손가락을 차례로 차려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았다.

당과 국가의 사회적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워졌다.

그들은 이렇게 성실한 땀으로 거두어들인 남새와 고기 등으로 정양생들의 식탁을 풀진 휴양생들은 끊임없이

